사드 여파 유커 끊길라…관광·유통업계 긴장

〈중국인 관광객〉

중국 보복 움직임에 불안감
7월 방한객은 큰 변화 없어
일부 "10% 감소" 주장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짐에 여행·유통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업계는 지난달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사상최대를 기록하는 등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아직 큰 영향이 없다면서도 혹시나 하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상용비자와 선상비자 요건 강화, 한류스타 출연 중단 등 중국의 보복성 대응으로 비칠 수 있는 움직임이 하나 둘씩 나타나면서 중국인 여행객(유커·遊客)의 한국 관광이 줄어들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여행업협회 관계자는 "중국 전담여행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직 큰 변화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으로 상황이 악화하면 중국인에 크게 의존하는 국내 관광업계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중 한국인이 절반 가까이 돼 한국-중국 간 여행이 제한되면 중국도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며 "다만 실제로 사드가 배치된 뒤에는 어느 정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방한 중국인 관광객은 90만명으로 예상돼 역대 월별 최다를 기록했다. 사드 배치 결정이 지난달 8일 발표된 것을 고려하면 아직은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개별 여행사 중에는 실제로 중국인 관광객 감소를 경험했다는 곳도 있다.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관광) 여행사 중 한 곳은 "지난달 중국인 관광객이 전년보다 10% 줄었다"며 "지난해 7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영향으로 관광객이 적었던 것을 생각하면 사실상 큰 감소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면세점 전체 매출에서 중국인 관광객 구매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육박한다. 면세점 업계는 메르스 사태로 지난해 외국인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하면서 위기를 맞은 바 있다.

특히 9월 중추절과 10월 국경절 연휴 등 대목이 다가오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일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한국 방문 취소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개최된 '2016 대구치맥페스티벌'에 참석 예정이었던 중국인 300명이 예약을 취소했다.

다음 달 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한국-중국전을 보기 위해 방한하려던 중국인 단체 관광객 3000명도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도자기협회도 한국에서 개최 예정이던 행사를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중국 현지 여행사측은 이런 단체 여행객 취소사실을 부인하고 여행객 모집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반관영 인터넷매체 펑파이(澎湃)에 따르면 월드컵 예선전 관람 단체여행객을 모집하고 있는 중국청년국제여행사와 상하이중원(中元)국제여행사 등에 확인 결과 3000명의 단체 여행객 취소사실은 들어보지 못했다면서 여행객 모집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어떤 이상현상도 없으며 취소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이들 여행사는 또 한국을 가지 말라는 어떤 통지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또 중국도자기협회라는 단체는 없고 중국도자기공업협회라는 곳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펑파이는 전했다. /연합뉴스

靑 "中, 사드 본말 전도" 주장
중국 매체 "적반하장" 재반박

청와대가 중국 관영 매체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비판을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반박하자 중국 관영 매체가 '적반하장'이라며 재반박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지난 7일 중국 인민일보 등 관영 매체의 사드 비판과 관련 입장자료를 통해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지속적인 도발에 대해 중국 관영 매체에서 사드 배치 결정이 이러한 도발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 등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중국은) 북한에 대해 보다 강력한 문제제기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8일 뤼차오(呂超) 랴오닝(遼寧)성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주임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이런 태도는 남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도타일파(적반하장과 같은 성어)와 같은 것"이라며 "사드 배치로 한중관계를 긴장시킨 책임을 완전히 북한과 중국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뤼 주임은 이어 "한국은 미국의 꾐에 빠져 바보짓을 한 것"이라며 비난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잠재적인 적으로 만들 경우 한국의 국제적 환경이 악화돼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어 익명의 자국 전문가를 인용, "청와대의 논리는 특별히 새로운 것이 없다"며 "한국은 사드는 배치하되 한중관계는 훼손하지 않는 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희망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격이 한국의 예상을 뛰어넘어 한국 외교를 곤경에 빠뜨렸다"고도 주장했다. /연합뉴스

파키스탄 병원 폭탄 테러…최소 42명 사망 8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중북부 케타의 국립병원에서 발생한 폭탄 폭발로 최소 42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부상했다. 아직 이번 테러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단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날 이 병원에서 보안군인 등이 시신과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연합뉴스

힐러리-트럼프 경제정책 발표 '맞불'

미국 민주·공화 양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가 이번주에 경제정책 연설 대결에 나선다.

트럼프 선거운동본부의 폴 매나포트 선거대책위원장은 7일(이하 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출연해 "월요일(8일)부터 우리의 경제정책을 발표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의제와 관심사를 제 위치로 돌려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8일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정치 분석가들은 트럼프가 감세와 정부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하는 자신의 경제 관련 정책들을 망라해 연설 주제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이라크전쟁의 무슬림 전사자의 부모 비하 등 각종 논란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 경제 분야로 관심을 돌리려는 시도라고 풀이했다.

클린턴은 오는 11일 같은 디트로이트에서 연설할 때 경제 문제를 가장 큰 주제로 삼을 예정이다.

클린턴 캠프는 이날 성명에서 클린턴이 디트로이트 연설에서 지난달 전당대회 이후 이어 온 버스 유세 일정을 마무리 짓는 것과 더불어, 트럼프가 경제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부각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각 정당의 정강이나 후보의 연설 등을 통해 지금까지 알려진 경제정책을 보면 클린턴은 시간당 최저임금의 15달러 인상과 부자 증세, 금융업계 규제 강화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트럼프는 감세와 더불어 조세제도의 간소화를 주장하고 있고, 최저임금의 경우 그동안 줄곧 인상에 반대해 오다 최근 최소 10달러로 인상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와 클린턴이 잇따라 연설에 나설 디트로이트는 지금은 쇠락한 옛 산업중심지를 뜻하는 러스트 벨트의 대표적 도시 중 한 곳이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43 위나라 초대 황제 조비

조비(曹丕, 187-226)는 삼국시대 위나라의 초대 황제로 자는 자환, 시호는 문제다. 조조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으나 형인 조앙과 조삭이 일찍 죽어 적장자가 되었다. 조조 사후 후한의 헌제로부터 양위를 받아 초대 황제가 되었다.

그는 자라면서 유학에 조예가 깊은 선비로부터 교육을 받았다. 최염이 그의 사부가 되었다. 그는 최염에게 서경, 춘추, 시경, 예기 등을 배웠다. 그가 사냥에 나가 짐승을 쫓는 데만 몰두하자 최염은 글을 올려 놀이와 사냥에 정신을 파는 것을 극력 경계하였다.

211년 오관중랑장에 임명되고 부승상이 되었다. 조조는 장남을 군정의 대권에 직접 참여시켜 통제하도록 함으로써 조씨 집안이 후한을 대신하게 하려는 의도였다. 217년 동생 조식과의 경쟁에서 이겨 위나라 태자에 옹립되었다. 조비와 조식은 둘다 황후 변씨의 소생으로 문재가 뛰어났다. 조조, 조비, 조식 3부자는 건안 문학의 중심인물이었다. 조조는 시 짓기에 탁월한 조식의 재주를 크게 사랑했다. 조정이 조비파, 조식파로 분열되었다. 위기를 느낀 조비는 중신 가후에게 도움을 청했다. 가후는 "인덕과 관용을 발휘하고 숭상하며 아들의 도리를 잘 지키라"고 충고했다. 조비는 겸손히 처신하면서 중신들의 신임을 얻는데 주력했다. 조조는 가후에게 누가 후계자로 적임자인지를 하문했으나 가후는 묵묵부답했다. 그 연유를 묻자 "원소와 유표 부자의 사례를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원소는 사후에 세 아들 원담 원희 원상이 반목하여 조조에게 집안이 멸망했다. 유표 역시 장남 유기를 멀리하고 채씨가 낳은 차남 유봉을 사랑해 형주를 고스란히 조조에게 헌납하였다. 조조는 장남 조비의 손을 들어주었다.

황제로 취임해 가후를 태위로 화흠을 상국으로 삼았다. 왕랑을 부승상격인 어사대부에 임명했다. 그는 강동을 정벌하려는 구실로 대군을 동원했는데 기실은 헌제가 왕위를 내놓게 하기 위해서였다. 결국 헌제는 퇴위해 산양군이 되었다. 하내군 산양현 1만호를 식읍으로 주고 네 아들을 열후로 봉했다. 222년 손권이 반란을 도모하자 남정에 나섰다. 가후는 남정에 반대했다. "손권은 허세와 실세를 구별하고 육의는 군대의 형세를 통찰하며 험준한 지형에 의지하여 요충지를 지키고 강호에 배를 띄우고 있으니, 단 한번에 모든 일을 도모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결국 남정은 큰 성과없이 끝났다.

상서 진군의 건의를 받아들여 새로운 관리선발제도인 9품관인법을 시행했다. 관직의 등급을 1품에서 9품으로 구분해 관품에 따라 대우를 달리했다. 그러나 개인의 재덕에 따라 관리를 채용하려는 당초 의도와는 달리 유력자의 자제가 높은 품위로 등용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환관과 외척의 발호를 금지하기 위한 정책도 실시했다. 사사로이 복수하는 것을 금하고 반역죄와 대역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밀고하는 것을 허용치 않았다. 태학을 세워 학문을 장려하였다.

조조의 아들…태학 세워 학문 장려

그는 뛰어난 시인이자 문학 비평가였다. 그는 사람의 인성은 문장에 드러난다고 생각했다. 시 짓는 능력을 관료 채용에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그는 전론(典論)에서 문학이 인간의 행위 중 최고의 형태이며 한 사람의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는 주된 방법이라 주장했다. "문장은 나라를 경영하는 대업이고 여전히 변치 않을 성대한 일이다. 사람의 수명은 때가 되면 다하고, 영예와 즐거움은 자기 몸에 그친다. 두 가지가 반드시 오래 지속되도록 하는 데는 문장의 무궁함보다 나은 것이 없다." 아버지 조조의 강동 정벌에 참여해 남긴 부회부(浮淮賦)라 시에서는 "군사들은 기운차고 전선에 꽂은 깃발이 펄럭이니 그 위용이 너무나 장엄했네. 효무제가 사냥 나가던 행렬도 천리에 이어진 전선이 자아내는 경관에는 크게 못 미칠 것이네"라고 격정적인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226년 마흔에 붕어했다. 진수는 "문제는 천부적으로 문학에 소질이 있었으니 붓을 대면 문장이 되었다. 만약 여기에 도량을 좀 더 크게 하고 공평한 마음 씀씀이에 힘썼으면 옛날의 현명한 군왕이 그로부터 어찌 멀리 있었겠는가"라고 평하였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토지, 6000평
투자가치 확신합니다!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30-47번지 의 13필지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시세 - 33억원 / 매매 - 27억 (일시불 조정가)
- 계획관리지역 / 개발호재 많음
- 단기투자 최고지역!
- 전원주택 오토캠핑장 펜션 가든 온천 호텔 등등 모든업종 가능
- 개발 후 70억 이상 가치 있음
- 소유자 H. 010-3627-8282